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14(금) ~ 2025.11.20(목)

제공일시 2025 11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11.14(금) ~ 2025.11.20(목)

제공일시 2025 11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CBAM 면제 요구한 인도 일축...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 부담 불가피

- 유럽연합(EU)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인도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면 면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하며 정책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 EU는 인도가 주장한 '전면적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인도가 자국 내 탄소가격제를 도입하는 등 자체 탄소정책을 마련할 경우 부담 완화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있다고 전했다
- 이번 입장 표명으로 철강·알루미늄 등 인도 수출 기업들의 CBAM 비용 부담이 불가피해졌고, 기후정책과 무역정책의 충돌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함

[\(임팩트온 2025.11.19\)](#)

2. 중국 4680억 달러 석유·가스 투자로 글로벌 에너지 판도 재편

- 원유 전문 매체 오일프라이스는 중국 국영 에너지 기업들이 2019년 이후 석유·가스 탐사·생산에 4680억달러(약 683조원)를 투자했으며 이는 직전 6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라고 보도함
- 중국은 국내 생산 확대와 함께 원유 수입을 늘려 재고를 축적하는 전략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재 원유 재고는 12억~13억 배럴로 추정됨
- 여기에 풍력·태양광·전기차 등 재생에너지 투자까지 확대되면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글로벌 석유 기업들이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

[\(글로벌이코노믹 2025.11.18\)](#)

3. EU·영국 ETS 연계 협상 개시...CBAM 부담 완화·규제 정렬 논의 본격화

- EU 이사회가 브렉시트 이후 분리된 EU·영국 간 탄소배출권거래제도(ETS) 연계를 위한 협상 권한을 집행위원회에 부여했으며, 회원국 대사단이 만장일치로 협상 개시를 승인함
- 이번 협상은 기후·통상 분야에서 단절됐던 제도 연결을 복원하려는 첫 단계로 평가되며, ETS가 연계될 경우 양측 기업은 서로의 CBAM을 면제받게 됨
- 특히 내년 1월부터 EU CBAM 적용 대상이 되는 영국 기업은 ETS 연계 시 부담 완화 효과가 커지는 구조임

[\(임팩트온 2025.11.18\)](#)

국내 정책

1. 이상기후로 일 떨어져 수입 줄면...기후부, '기후보험' 도입 추진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상기후로 인해 근로시간 감소나 임금 손실을 겪는 야외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기후보험' 도입을 추진했다고 밝힘
- 농·어민이 이상기후로 인해 재배적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품종을 도입할 경우 지원하는 '농촌 기후대응 직불금' 도입 방안도 함께 논의됐으며, 국민 참여 토론회를 통해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초안이 공개됨
- 이번 적응대책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국가 계획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보호를 주요 목표로 설정함

[\(뉴시스 2025.11.19\)](#)

2. CBAM 코앞...중기부, 5년간 탄소감축 R&D에 4100억 투입 계획

- 중소벤처기업부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 탄소감축 기술 개발(R&D)에 5년간 4100억원을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고 밝힘
- 중기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10개 중소기업 핵심 품목을 선정해 '탄소감축 R&D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6~2030년까지 총 4168억원 예산을 배정해 연소 연료·원료 대체, 전력 저감, 원료·부품 재사용 기술 개발을 지원함
- 정부는 이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 역량이 높아질 경우 2034년 연간 탄소 배출량을 306만톤가량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이투데이 2025.11.20\)](#)

3. 한국, '탈석탄동맹' 공식 합류...신규 석탄발전 중단·40기 폐쇄 확정

- 한국 정부가 COP30에서 탈석탄전력동맹(PPCA) 가입을 공식화하며 신규 무감축 석탄발전 건설 중단과 기존 석탄발전소의 단계적 폐쇄를 처음으로 공식 약속함
- 한국은 총 61기 석탄발전소 중 40기를 2040년까지 폐쇄하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나머지 21기는 경제성·환경성 평가와 공론화 절차를 거쳐 내년 중 폐지 일정을 확정할 예정임
- 한국은 아시아 두 번째 PPCA 가입국으로, 무감축 석탄발전에서 청정전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국제 연합체에 참여함으로써 감축 정책의 이행 의지를 공식화함

[\(임팩트온 2025.11.17\)](#)

글로벌 기업

1. AI 열풍에 탄소 크레딧 '공급난'...빅테크, 직접 생산까지 나섰다

- 로이터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등이 데이터센터 확장에 따라 고품질 탄소 제거 크레딧을 대량 구매하면서, 2024년 영구적 제거 크레딧 가격이 산림 보존 기반의 저가 크레딧보다 약 4배 오르는 등 공급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부 기업은 직접 생산에 나섰다. 퓨어 데이터센터스 그룹이 영국 윌트셔에 2400만파운드를 투입해 영국 최대 규모의 바이오차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음. 이는 고객사인 대형 기술기업들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짐

[\(임팩트온 2025.11.19\)](#)

2. 호주 필바라 미국 리튬 공급망에 참여 의사, "포스코홀딩스 파트너십으로 유리"

- 호주 필바라미네랄스는 미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구상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음

- 데일 헨더슨 필바라미네랄스 CEO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호주-미국 간 핵심광물 협정에 따라 새로운 협력 기회를 모색 중이라고 말하며, 포스코홀딩스와의 사업 경험과 미국 화학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공급망 참여의 근거로 제시함

[\(비즈니스포스트 2025.11.13\)](#)

3. 토탈에너지, 아시아 재생에너지 매각 검토...'핵심시장 중심' 포트폴리오 대수술

- 블룸버그는 토탈에너지가 수억달러 규모로 평가되는 아시아 재생에너지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으며, 외부 자문사와 협의해 잠재 매수자들과 초기 접촉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함

- 이번 검토는 최근 분기마다 이어진 포트폴리오 조정 기조가 아시아로 확대된 것으로, 10월 투자자 설명회에서 발표된 구조조정 계획에 추가 매각 가능성이 더해졌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됨

[\(임팩트온 2025.11.14\)](#)

4. 바스프, 덴마크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OASE 블루' 기술 공급

- 바스프와 안드리츠 그룹이 OASE 블루 기술 사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기술은 덴마크 오르후스시의 폐기물 에너지화 플랜트에서 연간 약 43만501톤의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탄소 포집 프로젝트에 적용될 예정임

- 안드리츠는 사전 엔지니어링을 진행 중이며, 본격 착수 여부는 덴마크 CCS 기금 지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예정으로, 오르후스시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해당 프로젝트를 추진함

[\(헬로티 2025.11.13\)](#)

국내 기업

1. SK온, 中 엔청에 1000억 투자...신차 배터리 생산 라인 띄운다

- SK온은 장쑤성 엔청 공장의 배터리 생산라인 8개를 전면 개조해 신차용 배터리 공급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이번에 발행한 1000억원 규모 녹색채권을 전액 설비 개조에 투입해 2027년부터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증권신고서에 밝혔음

- 회사는 공장 가동 확대와 효율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원까지 증액 가능성이 열려 있음. 증액분 역시 모두 시설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임

[\(뉴스핌 2025.11.19\)](#)

2. 현대제철, 폐열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 성과...엘살바도르 기업 탄소 배출량 전량 상쇄

- 현대제철의 폐열 에너지 회수 프로젝트가 국제 탄소중립 인증을 받은 코살코 그룹의 탄소 배출량 상쇄에 활용됐으며, 코살코 그룹은 2024~202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전량 상쇄해 '국제 100% 탄소 중립 프로그램' 인증을 획득했음

- 폐열 에너지 회수 시설은 제철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가스를 재활용해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는 기술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축 효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배출권으로 전환됨

[\(더구루 2025.11.19\)](#)

3. 한화에어로, 美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추가확보..."AI 전력수요로 LNG 주목"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와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국 LNG개발업체 넥스트데케이드 지분 약 59만주를 주당 6.1달러에 매수했으며, 총 매수액은 약 360만달러 수준이라고 알려짐

- 한화그룹은 LNG를 핵심 사업으로 선정해 넥스트데케이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향후 한화오션을 통해 LNG 판매·운송·선박 건조까지 사업 기회를 넓히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더구루 2025.11.17\)](#)

4. OCI, 데이터센터 인프라 기업 변신

- OCI그룹은 미국에서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개발 사업에 진출해 부지 확보, 인허가, 전력망 구축 등을 대신 수행하는 'AI 디벨로퍼' 모델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채택했음. OCI에너지는 텍사스 미션솔라에너지 유희 부지에 데이터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

- OCI에너지는 태양광·풍력·원자력 기반 전력망을 포함한 인프라를 먼저 구축한 뒤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미국 AI 데이터센터 시장 확대로 사업 기회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한국경제 2025.11.16\)](#)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11.14(금) ~ 2025.11.20(목)

제공일시 2025 11 28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EU, AI·프라이버시 규제 완화안 공개...빅테크 수혜 논란 확산

- EU 집행위원회가 '디지털 유니버스' 패키지를 발표해 고위험 AI 규제 시행 시점을 2026년 8월에서 2027년 12월로 16개월 미루기로 했으며, 기업들의 기술 준비 기간 확보가 주요 배경으로 제시됐음
- 고위험 AI는 생체인식, 도로교통, 전력·가스·수도 공급, 채용·시험, 의료서비스, 신용평가, 법 집행 등 민감 분야가 포함되며, 규제 연기에 따라 관련 사업자들이 시스템 인증과 데이터 절차를 재정비할 시간을 확보하게 됐음
- 개인정보 정의 기준도 조정돼 재식별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익명 정보는 개인정보로 분류되지 않으며, 건강·생체 등 민감 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데이터셋도 합리적 제거 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됐음
- 이로 인해 구글·메타·오픈AI 등 미국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지멘스와 SAP 등 유럽 기업들도 학습 데이터 접근성이 확대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음
- 쿠키 동의 절차는 단일 클릭 또는 브라우저 설정으로 6개월간 선호를 유지할 수 있게 단순화됐으며, 방문자 수 집계 등 필수 기능에는 동의 팝업이 불필요해져 사용자 편의성이 높아졌음
- 중소기업은 AI 시스템 문서 작성 요건이 축소돼 연간 최소 2억2500만유로(약 3800억원)의 규제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전망됐고, 제한적 용도의 고위험 시스템은 EU 데이터베이스 등록 의무가 면제됐음
-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유럽 비즈니스 월렛'이 도입돼 기업 문서 제출·서명 절차가 간소화됐으며, 집행위는 이로 인해 연간 최대 1500억유로(약 253조원)의 행정 비용 절감 가능성을 제시했음
- 시민사회단체 127곳은 이번 패키지를 디지털 기본권의 후퇴라고 비판하며 브뤼셀 시내에 이동식 광고판과 포스터를 설치하는 등 반발했고, 개인정보보호 단체와 일부 의원들도 빅테크와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에 따른 결정이라고 비판했음
- 기술 업계는 완화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규제가 충분히 유연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EU 집행부는 핵심 보호장치는 유지하면서 규제 체계를 단순화해 혁신과 안전 간 균형을 확보한 조치라고 설명했음

(임팩트온 2025.11.21)